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학설, 모모타로 전설】**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오카야마를 이야기 할때 뭐니뭐니해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모모타로」입니다.

모모타로는 옛날 도깨비가 민중을 덮쳐 힘들때 북승아에서 태어난 모모타로가 개와 원숭이 께과함께 도깨비를 퇴치한다는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그 모모타로 전설의 모델이 된것은 키비츠 히코노미코토의 우라 퇴치라고 되어있습니다.

키비츠 히코노미코토는 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일본서기나 고사에 등장하는 인물로 키비의 난을 평정하기 위해 야마토국에서 파견 되었습니다.

우라 퇴치의 이야기는 국보 키비츠 신사 등에 남아있는 서적에 기록 되어있어 무로마치 시대에 편찬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고대의 사건을 기록한 것임은 틀림 없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도깨비로 불리는 우라는 백제에서 건너온 사람들로서, 백강전투(663년)에서 당나라와 신라에 패망해 왜국(지금의 일본)에 피난온 백제인들은 키노쵸성에 대표적인 고대산성을 만들어 왜국인에게 제철기술을 전하는 등 주민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지역의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우라는 도깨비로 불렸으며 우라퇴치의 이야기가 만들어졌을까요.

당시의 배경을 찾아보면 5 세기의 키비국에는 전국 4 위 규모를 자랑하는 츠쿠리야마 고분의 존재가 나타내는 것처럼 야마토국에 버금가는 거대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5 세기 말이 되면서 거대한 고분은 만들 수 없게 되었고, 유라쿠 천황시절에 키비호족은 야마토국과의 세력다툼에 패배해 굴복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승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이야기 속에서 야마토국 세력이 모모타로, 키비호족이 도깨비로 그렸다는 것이 기존의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설과는 다른 사실도 배경도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백강 전투에서부터 9 년 후에 일어난 진신의 난 (672 년) . 덴지 천왕의 아들 오토모 왕자와 동생 오아마 왕자가 황위를 놓고 국가를 양분한 싸움입니다.

이때 과거의 동지였던 당나라와 신라는 한반도의 패권을 둘러싸고 대립을 심화하고 있었고, 당나라는 왜국에 응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오모토 왕자 주변의 백제 측은 신라에 대한 적개심으로 요청에 응하도록 강요했습니다만, 백강 전투에서 많은 동료를 잃은 지방 호족은 다시 신라와 싸우는 것을 꺼려해 오아마 왕자편에 섰습니다.

그 후 승리한 오아마 왕자는 즉위하여 덴무 천황이되고 율령 국가 건설에 매진하여 신라와의 관계를 깊이해 나갑니다.

이렇게 보면 승자가 된 오아마 왕자 측면에서는 패자가 된 오모토 왕자를 둘러싼 백제 세력에 대한 적대감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가.

여기에서도 승자의 관점에서 기노쵸 성으로 상징되는 백제인을 도깨비로 간주하고 키비츠 히코노미코토가 토벌한다는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서기와 고사의 편찬이 백강 전투와 진신의 난으로부터 약 반세기 후인 것과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 이론에 신빙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느끼고 있습니다.

덧붙이면 진신의 난의 배후는 덴무 천황의 황후(후 지토 천황)로서 천황과 자신의 사이에서 태어난 쿠사카베 왕자를 황위에 올리기 위해 일으켰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실은 그녀가 모모타로 전설을 낳은 주인공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어찌면 키비츠 히코노미코토의 우라 퇴치와 모모타로의 도깨비 퇴치는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다양한 이야기가 합쳐져 완성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번 저의 학설은 그것중의 하나입니다. 역사를 상상하는 것은 고대의 낭만을 맛보는 실로 재미있는 일입니다.